

【논문】

칸트의 실체와 <제1유추>

백 승 환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인식론, 존재론

【주요어】 칸트, 물질, 기체, 시간 고정자로서의 실체, 속성 담지자로서의 실체

【요약문】 칸트는 <제1유추>에서 실체를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으로서 규정하며, 그것의 보다 구체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논의를 꾸민다. 그러나 칸트의 야심찬 기획은 결국 논의의 불명료함과 복잡성 때문에 좌초되고 만다. 이러한 불운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나는 우선 칸트가 <제1유추>에서 사용하는 실체의 개념을 개괄하며, 칸트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서 혼란이 보이고 있음을 지적토록 할 것이다. (II) 다음으로 칸트의 이러한 혼란은 두 가지 의미의 실체 개념, 즉 “시간 고정자로서의 실체”와 “속성 담지자로서의 실체”를 서로 구별 없이 사용하는 데서 기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유추>에서 탐구되는 실체의 의미는 결국 ‘단수성’과 ‘절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어로 수렴되어야만 함을 주장할 것이다. (III)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의 현존은 결코 존재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단지 우리의 사유 활동에 수반의식이자 궁극적 자의식으로서 항상 부수하는 초월적 자아에 의해서만 인식론적으로 올바르게 규정됨이 보이며 논의는 마무리될 것이다. (IV)

I

칸트는 관계의 범주를 경험적 대상에 타당하게 적용하기 위한 순

수한 지성의 종합적 원칙들을 “경험의 유추들의 원리(Das Prinzip der Analogien der Erfahrung)”¹⁾(A 177/ B 218)라고 이름붙이면서 관계의 세 범주들, 즉 ‘실체성’, ‘인과성’, ‘상호성’이 우리의 경험에 오류 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조건을 탐구해나간다. 그리고 이후에 <경험의 유추>의 보다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이 세 관계의 범주들이 공통의 관심으로 한데 묶이게 되는 궁극의 조건이 바로 “시간규정”임을 밝히면서 각각의 관계의 범주를 시간의 세 양태인 ‘고정성’, ‘계기성’, ‘동시성’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관계의 범주가 이처럼 시간과의 관계에서 그것의 타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경험의 유추>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순서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현하는 현상들의 시간상에서의 필연적 연결의 관계를 논설하는 것에, (백종현 (2003), p.310.) 바꿔 말해 시간의 순서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 인식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에 <경험의 유추>의 관심은 집중된다.

이번 논문에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의 세 경험의 유추들 가운데 첫 번째의 것, 즉 <제1유추: 실체 고정불변성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다. 비록 그동안의 <경험의 유추>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주로 <제2유추: 인과성의 법칙에 따른 시간계기의 원칙>에 집중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험의 유추>에 대한 이해에서조차 <제2유추>를 준거삼아 <제1유추>를 다시 정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경향도 강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반대로 나는, 본고에서 <제1유추>의 내재적 논증에 집중함으로써 실체의 의미를 천착하는 <제1유추>의 논의에서

1) 이하 논의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관례에 따라 초판(1781)의 경우에 알파벳 ‘A’에 뒤이어 쪽수를 기록하고, 재판(1787)의 경우에 알파벳 ‘B’에 뒤이어 쪽수를 기록한다. 또한 『순수이성비판』이 아닌 칸트의 여타 저술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 전집을 기초로 하며, 인용은 ‘AA’로 약칭한 후 콜론을 사이에 두고서 관련된 전집의 권수와 쪽수를 병기한다. 이에 더해, 칸트의 저술들에 대한 국역본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논의의 전개상 특별한 무리가 없는 한, 백종현 교수의 번역과 제안에 따르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인 서지사항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말미를 참조하라.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을 우선 지적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칸트적 사유에 기대 제시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에서 결국 <제1유추>의 논의가 왜 여타 경험의 유추들을 위한 논의의 준거가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보다 먼저 『순수이성비판』 초판(A)과 재판(B)을 통해 나타나는 실체의 원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정의에 주목하며, 이 두 정의와 그것의 구체적 내용을 논설하는 증명에서 왜 칸트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보이는지 개괄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체의 개념에 대한 사용의 혼란은 결국 <제1유추>의 논증 대부분을 뒤엎어버리게 만들기에, 우리의 논의를 무엇보다 칸트의 실체에 대한 이해의 개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II) 그 다음으로 <제1유추>에서 드러나는 칸트의 실체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혼란스럽기만 한 관점은 바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의 실체 - “시간 및 변화 고정자로서의 실체”(Su)와 “속성 및 성질 담지자로서의 실체”(Sb) - 가 서로 구별되는 논증 없이 섞여 주장되기 때문이란 사실을 밝히며,²⁾ 이와 같은 실체의 두 의미를 통해 칸트가 <제1유추>에서 기획했던 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몇 논의들이 좀 더 치밀하게 보완되어야만 함이 강조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특히 랭턴R. Langton이 실체의 세 개념 - “순수한 논리적 의미의 실체 개념”(S1), “도식화된 실체 개념”(S2), “현상적 실체 일반의 개념”(S3) - 을 구별함으로써 <제1유추>에서 문제되는 S2를 S1과 S3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훌륭한 통찰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할 것이다. (III) 그렇지만, 랭턴의 통찰은 칸트의 S2에 대한 이해에 궁극적 확답을 주지는 못하며, 보다 칸트적인 모습으로 S2의

2) 여기에서 나는 베넷J. Bennett과 디커G. Dicker의 실체에 대한 구분을 받아들여, 이후 논의에서 전자를 단순히 ‘시간 고정자로서의 실체’라고 명명하며 <substance as an underpinning of time>의 줄임말로 ‘Su’를 사용하고, 후자를 단순히 ‘속성 담지자로서의 실체’라고 명명하며 <substance as a bearer of attributes>의 줄임말로 ‘Sb’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의 두 구체적 의미를 구분토록 할 것이다. (Bennett (1966), p.201; Dicker (2004), p.151.)

의미에 오류 없이 다가서면서도 독단론과 회의론의 두 철학적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S2가 어떤 측면에서 S1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S2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S3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가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의 유한한 능력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구별이 우선 의미 있게 취해져야 함이 강조될 것이고, 이러한 구별의 중심에서 우리의 궁극적 자의식 및 수반의식으로 기능하는 초월적 자아의 필연적 현존이 부각됨으로써 결국 <제1유추>의 논의를 관통하는 S2의 인식론적·존재론적 지위와 의미가 올바르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IV)

칸트에게서의 실체가 갖는 의미의 혼란과 서술의 난해함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뒤틀려 버린 <제1유추>의 논증에 내가 가한 일련의 수정이 올바르고, 그러한 수정에 토대하여 칸트적 사유와 일관되게 주창된 나의 해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유한한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굴레라는 숙명에서 발현되는 ‘초월적 의식’의 빛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백승환 (2009), p.84.) 다시 말해, 이것은 곧 칸트가 독단론과 회의론의 도전에 무릎 꿇지 않고서도 실체의 의미를 ‘현상’과 ‘사물자체’의 팽팽한 긴장을 통해 올바르게 규정하는, 그야말로 가장 초월철학적인 사유의 극한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II

<제1유추>에서 드러나는 칸트적 실체의 의미, 즉 고정불변성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순수이성비판』 초판과 재판을 통해 서로 달리 정의되고 있는 각각의 실체의 원칙에 주목해보도록 하자.

[제1판] “모든 현상들은 대상 자체로서 고정불변적인 것(실체)과 그것의 순전한 규정인, 다시 말해 그 대상이 실존하는 방식인, 전변적인 것을 함유한다.” (A 182)

[제2판] “현상들의 모든 바깥에서 실체는 고정적이며, 실체의 양은 자연에서 증가되지도 감소되지도 않는다.” (B 224)

서술상의 차이는 있지만, 칸트가 실체의 원칙으로 세운 위의 두 정의는 대체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다. 요컨대, 주장의 핵심은 ‘변화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서로 구별될 수 있기에 응당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칭되어야만 하며, 각각은 ‘실체(實體)’와 ‘우유(偶有)’로 구별되어 불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초판의 실체에 대한 정의내용 전부이고, 재판의 실체에 대한 정의내용 일부이다. 다시 말해, 재판의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일견 라부아지에 A.L. Lavoisier의 “물체량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게 하는 “실체량 보존의 법칙”을 초판의 정의에 더해 추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재판의 원칙은 초판의 원칙을 모두 포괄하고, 보다 강력하다. (Dicker (2004), p.145.) 칸트는 이와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실체의 원칙이야말로 <제1유추>에서 다루어진 구체적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지 초판의 정의와 달리 재판의 정의는 격자로 표기하여 강조까지 하고 있다. 실체의 원칙에 대한 초판과 재판의 증명방식과 기술내용은 어느 한 곳 다름없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모두가 다 아무런 이의 없이 공감하는 칸트의 실체에 대한 원칙이, 왜 그것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철학적 문제들에 얽혀들게 되는지를 탐구해보도록 하자. 다시 묻자. 어떤 이유에서 칸트의 증명이 문제가 되는가?

디커도 잘 지적하였듯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칸트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실체는 고정불변적이다”라는 명제는 동어반복적이다. 왜냐하면, 이 고정불변성은 순전히 그로 인해 우리가 실체의 범주를 현상에 적용하는 근거이고, 모든 현상들 중에는 무엇인가 고정적인 것이 있으며, 이것에서 변모하는 것은 다름아닌 그 현존하는 것의 규정임을 사람들은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은

선형적 종합 명제와 관련하므로 [...] 개념으로부터 이끌어질 수가 없다. (A 184/ B 227-228)

칸트에 따르면, “실체는 고정불변적이다”라는 명제는 언어의 경제성을 상실한 군더더기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라는 개념에서 자연스레 ‘고정불변성’을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단순하게 말해, 위의 명제는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 필연성이 보증되는 분석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관계를 살펴 “실체는 고정불변적이다”라는 명제를 따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제1유추>에서 실체 고정불변성을 밝혀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칸트의 기획은 아주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이처럼 무용한 작업에 매달린 것일까? 왜 그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여 괜한 어려움을 떠맡게 되는가? 위의 인용문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것은 칸트가 실체의 범주를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 현상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현상 중에 ‘실체’라는 용어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칸트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실제로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실체 고정불변성의 원칙에 대한 증명이 선형적 종합 명제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여기에서부터 현상 중의 실체의 현존을 증명함으로써 경험적 유추의 가장 근본적 과업을 완수하려 하는 칸트의 노력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실체를 논리적 의미에서 “(다른 것의 술어이지 않고) 주어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무엇”(A 147/ B 186)으로 규정하는 칸트의 설명은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한 개념상의 실체가 실제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칸트는 몹시 망설이기 때문이다.³⁾ (Wilkerson (1976), p.73.) 이와 같은 불운한 사정은 이미

3) 윌커슨 T.E. Wilkerson의 위의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배학수 교수의 국역본(1987, 서광사)을 참조하되, 본고에서 사용하는 칸트의 철학 용어들의 통일을 위해 내가 원문을 직접 검토하여 인용토록 할 것이다. 보다 구체

실체에 대한 개념상의 규정, 즉 실체는 항상 다른 것에 의해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체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침묵하여 그것의 내용을 단지 무규정적으로 남겨두어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에 결국 우리는 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실체를 무엇이라 기술하는 순간 그것이 곧 실체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 칸트도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었기에, 그가 현상 중의 실체, 즉 도식화된 실체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적당한 자격을 갖춘 몇몇 실체 후보들을 제시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칸트는 <제1유추>에서 도식화된 실체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대신 추상적 논의를 좀 더 확충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논증의 성공을 확신한 칸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 사이에서 칸트의 실체에 대한 논의의 실패를 단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설령 논의의 실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할지라도 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타의 많은 부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제1유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논의의 퍼즐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보도록 하자. 앞서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논의의 종국에 이르러 칸트의 실체의 개념에 대한 혼란된 이해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모든 현상들은 시간상에 있다. (내적 직관의 고정적 형식인) 기체로서의 시간상에서 동시에 있음Zugleichsein과 잇따름Folge는 표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위에서 현상들의 모든 바뀔이 생각되어야만 할 시간은 머물러 있고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그 위에서만 잇따라 있음Nacheinandersein과 동시에 있음Zugleichsein이 현상들의 규정들로서 표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A 182/ B 224-225)

“모든 현상들이 내감의 형식인 시간상에 있다”라는 칸트의 주장은 우리가 객관적 시간의 순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식 주관자인 나와 논리적 의미로 구별되는 외부대상들이 현상들로 우리에게 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 표상들은 순전한 우리의 [주관적] 표상들을 일정정도 넘어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동시성’과 ‘계기성’이라는 두 시간적 양태를 띠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칸트의 말마따나 “동시성과 계기성은 시간상의 유일한 관계들이기에”(A 182/ B 226) 현상들은 오직 이 두 가지의 존재방식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Dicker (2001), p.146.) 이러한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여 앨리슨H.E. Allison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단일한 시간 안에서 in a single time 연속적 흐름이 생긴다는 것이며,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시간이 모든 바뀔 중에서도 그것의 정체성을 항상 하나이자 같은 시간으로 간직한다’라는 주장과 같다”(Allison (2004), p.238.)라고 논설한다.⁴⁾ 요약컨대,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이 객관적 시간의 순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곧 그것들이 단일한 시간 안에서 외부대상들을 ‘동시적으로’ 혹은 ‘계기적으로’ 있는 것으로서 표상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에 토대하여 <제1유추>의 첫 번째 주장은 아래처럼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이, 단일한 시간 안에서 ‘동시적으로’ 혹은 ‘계기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사물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4) 논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개념, 즉 ‘변화’와 ‘바뀔’의 차이를 일관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A 187/ B 230 이하 논의에서 칸트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듯이,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과 관련하여 그것의 상태가 다른 모습으로 전이될 때, 우리는 고정불변적인 것은 <변화를 겪는다>고 표현하고, 그것의 상태는 <바뀐다>고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칸트의 저술들 및 참고서적들에 대해 이 두 개념에 상응하는 외래어로 ‘변화’에는 <Veränderung, alteration>을, ‘바뀔’에는 <Wechsel, change>를 고정시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가 “오로지 고정불변적인 것(실체)이 변화하고, 변모하는 것은 [...] 바뀌는 것이다”(A 187/ B 230-231)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도 주목해보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이와 같은 인식이 항상 참이 될 수 있게 입증하는 필연적 조건은 무엇인가? 칸트는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아래처럼 주장한다.

그런데 시간은 그것만으로는 지각될 수 없다. 따라서 지각의 대상들, 다시 말해 현상들에서 시간 일반을 표상하는 기체를 마주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기체에서 모든 바깥과 동시에 있음은 현상들의 이것과의 관계에 의해 포착 중에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A 182/ B 225)

여기에서 칸트는 이후 <관념론 반박>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로 부각되는 시간의 지각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백승환 (2009), pp.87-88.) 이것은 곧 우리가 외부대상들이 ‘동시적으로’ 혹은 ‘계기적으로’ 있는지에 대해 결코 시간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것이 일종의 독단적 전제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지각에 주어지는 자료들에 의해서야 비로소 현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지각되는 외부대상들의 시간적 관계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들 자체가 모두 지각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고서야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칸트는 시계의 구실을 함으로써 현상들의 시간관계 규정에서 필연적 조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현상 중의 지각 가능하면서도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칸트는 시간 일반의 기체, 즉 시간 자체를 표상하기 위한 지각 등가물로서의 어떤 것이라고 명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1유추>의 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은 각각 아래처럼 요약된다.

㉠ 시간은 그것만으로는 지각될 수 없다.

㉡ 그러므로 현상들의 시간관계 규정의 필연적 조건이 될 수 있는 지각 가능하면서도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이 현상 중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을 통해서 ㉡이 정당하게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 두 주장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몇몇 논의들이 보다 면밀하게 해부되어야만 한다. 크게 두 가지 논의가 검토될 수 있겠다.

먼저, 여기에서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실체의 단수·복수 개념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져야만 한다. 바로 위의 인용문을 다시 살펴보면, 칸트는 분명 시간 자체의 지각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상들의 시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 중에 고정불변성을 담보하는 어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단수 개념으로서의 기체, 즉 단수 실체로서 기술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칸트는 <제1유추> 곳곳에서 복수 개념으로서의 여러 개별 실체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한다.⁵⁾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칸트가 현상 중의 실체로 언급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마당에, 그러한 실체를 또한 단수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복수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후에도 본고 III장에서 이어지게 될 실체의 두 가지 의미 구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겠지만, 여기서는 시간관계 규정을 위해 필요한 고정불변적인 실체는 단수 개념의 실체인 것이 보다 칸트의 목적에 적합함을 지적하며 ㉡에서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일단 갈무리하도록 하겠다.⁶⁾

다음으로,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의 상대성·절대성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칸트는 실체의 성격을 고정불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현상 중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현상 중에 있는 것은 항상

5) 일례로 칸트는 “변화는 오로지 실체들에서만 지각될 수 있다”(A 188/ B 231)라고 주장한다.

6) 단일한 시간 계열의 지속을 설명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고정불변적인 실체이며, 그것의 고정불변성이 영구한 하나의 실체에 의해 표상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칸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오히려 둘 이상의 실체가 이야기된다면, 칸트가 우려했던 바처럼, 우리는 둘 이상의 시간 계열을 갖게 됨으로써 단일한 시간의 통일성을 해치는 불합리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A 188/ B 231)

바뀌고 또 바뀌며 그렇기에 도대체가 고정불변적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호 모순되는 ‘현상성’과 ‘고정불변성’을 우리는 어떻게 서로 조화시켜 실체라는 한 이름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는 것도 역시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단순히 <제1유추>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의 산발적 퍼즐 조합을 겨우겨우 찾아 가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칸트의 실체에 대한 논의의 정수에 있는 이러한 물음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던 첫 번째 부연 논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두 번째 부연 논의에 대해서도 칸트의 의중을 살펴 일단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칸트가 무엇보다 시간의 지속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고정불변적인 실체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됐음을 주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고 보면, 칸트가 사유의 궁극에 두었던 고정불변적인 것은 절대적 의미의 실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Dicker (2001), p.149.)

이러한 두 보완격의 논의를 통해 이제 ㉠을 통해 이끌어져 나온 ㉡의 의미가 보다 확실하게 정립된다. 즉, 칸트가 말하는 실체는 이제 ‘하나이며’ ‘절대적인’ 무엇으로 등장한다.

형식적으로는 실체의 열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 드러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현상 중의 실체라는 칸트의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다시금 아래처럼 주장하며 실체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시작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실재적인 것, 다시 말해 사물들의 실존에 속하는 것의 기체는 **실체**이다. 이것에서 현존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단지 규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A 182/ B 225)

위의 주장을 통해, 칸트는 앞서 ㉠, ㉡, ㉢으로부터 힘겹게 입증한 실체의 개념이 현상 중에 직접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칸트의 이러한 표면적 의도 외에도 보다 깊은 철학적 함축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함축의 단서는 그가 ‘실재적인 것’, 즉 ‘사물의 실존에 속하는 것’, 다시 말해 사물의 성질을, 그것의 담지자로서의 사물, 즉 ‘기체’, 다시 말해 ‘실체’와의 관계에서 규명하려 하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러한 서술은 우리에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전통적 실체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는 “모든 속성들을 담지하면서도 그 자신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담지되지 않는 것”(Dicker (2001), p.151.)으로 정의가 되는데, 칸트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 실체를 “(다른 것의 술어이지 않고) 주어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무엇”(A 147/ B 186)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체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일정정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영향을 받은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의 개념은 분명 앞서 논의했던 실체의 개념과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이하 논의에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적 실체를 “속성 담지자로서의 실체”(Sb)라 부르면서 이것을 앞서 ㉠, ㉡, ㉢을 통해 논의했던 “시간 고정자로서의 실체”(Su)와 서로 엄밀하게 구별토록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체의 두 의미에 대한 구별 덕분에 이제 칸트의 논의는 보다 분명하게 논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동시에 우리에게 논의 전개상의 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금 상호 모순 없이 두 가지 의미의 실체, 즉 ‘Su’와 ‘Sb’를 조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시간의 관계를 표상하기 위해 요청했던 현상 중의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이 바로 속성들의 담지자로 기능하는 실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서 ㉢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졌던 두 가지의 부연 논의에 함축된 내용도 여기에서 재차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Su가 실체로서 가졌던 ‘단수성’과 ‘절대성’을 이제 Sb도 가져야만 한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실체의 두 의미에 대한 개략적 논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러한 실체의 복합적 의미가 일으키는 문제와 그것에 대한 처

방과 함께 본고 III장에서 전개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제1유추>의 네 번째 주장은 아래처럼 요약된다.

㉔ 모든 실제적인 것의 기체는 실체이기 때문에, 현존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실체의 규정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논의로, 칸트는 재판의 <제1유추>에서 추가된 실체의 원칙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기술하며, 자신의 개략적 서술을 끝맺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따라서 그것과의 관계에서 현상들의 모든 시간관계들이 규정될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은 현상 중의 실체이다. 다시 말해, 모든 바깥의 기체로서 언제나 동일자로 머물러 있는 것인, 현상의 실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실체는 현존에서 바뀔 수 없는 것이므로, 자연에서 그것의 양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다. (A 182/ B 225)

칸트의 마지막 논의는 실체량 보존에 관한 것이다. 이미 II장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논의는 그것이 물체량 보존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비쳐짐으로써, 칸트가 초월적 논의[“실체량 보존의 법칙”]를 경험적 논의[“물체량 보존의 법칙”]로 환원시켜 파악하려 했다 간주되며 많은 주석가들⁷⁾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베넷 J. Bennett을 위시해 등장한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칸트의 철학을 왜곡하는 관점을 낳는다. 칸트는 이 두 법칙의 차이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다만, <제1유추>에서 실체량 보존에 대한 논의는 그것의 중심부에 놓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또 다른 부연에 의해 서술됨으로써 강조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미 개괄했던 ‘하나이며’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해되는 실체의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에 또 다시 이에 대해 상술하는 것은 칸트에게 어디까지나 소모적

7) 아마도 베넷이 이러한 관점에서 서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일 것이다. (J. Bennett (1976), p.200.)

인 작업으로 느껴졌을 공산도 큰 것이다.

이후 논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밝혀지게 되겠지만, 랭턴의 이해에 따라 우리는 본고에서 문제되는 칸트적 실체의 후보로 ‘물질’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어야만 할 사실은 그것의 구체적 의미가 ‘상대적 실체’와 ‘절대적 실체’의 관계에서 탐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초월적 의미로 기술되는 ‘물질’을 통해 실체량 보존이 가능하게 됨이 증명된다. 이러한 논의의 성공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비적 단계의 몇몇 칸트적 가정들과 그것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겠기에, 보다 상세한 논의는 역시 장을 바꾸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제, 이번 장의 논의를 끝맺기 전에 위의 인용문을 통해 밝혀진 <제1유추>의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장을 요약해보도록 하자.

㉔ 실체는 모든 바깥의 기체로서 언제나 동일자로 머물러 있기에, 자연에서 그것의 양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다.

III

<제1유추> 곳곳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실체에 대한 칸트의 논증은 II장의 논설을 통해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사실 실체의 고정불변성에 대한 원칙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제1유추> 증명의 첫 단락은 <제1유추> 증명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만큼, 내용이 아주 심하게 압축·요약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1유추> 증명의 첫 단락을 칸트적 사유에 기대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러한 과업을 II장의 논의가 성실히 수행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서 ㉑, ㉒, ㉓, ㉔, 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칸트의 논의를, 그것의 세부적 내용에 따라 다시금 세 개의 논의로 묶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시 II장의 논의를 들추어보도록 하자.

㉠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이, 단일한 시간 안에서 ‘동시적으로’ 혹은 ‘계기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사물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시간은 그것만으로는 지각될 수 없다.

㉢ 그러므로 현상들의 시간관계 규정의 필연적 조건이 될 수 있는 지각 가능하면서도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이 현상 중에 있어야만 한다.

㉣ 모든 실재적인 것의 기체는 실체이기 때문에, 현존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실체의 규정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 실체는 모든 바깥의 기체로서 언제나 동일자로 머물러 있기에, 자연에서 그것의 양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다.

<제1유추> 첫 단락의 논의는 그것의 내용상, ‘시간 고정자로서의 실체’에 대해 논설하는 부분[㉠, ㉡, ㉢], ‘속성 담지자로서의 실체’에 대해 논설하는 부분[㉣], ‘실체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논설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러한 내용이 <제1유추>에서 전개된 논의의 전부이다. 하지만, 위의 세 구분된 논의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의 것은 우리의 핵심 논의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으며, 결국 그것의 구체적 의미는 앞의 두 논의, 즉 ‘Su’와 ‘Sb’를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나는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을 두 가지 실체의 구체적 의미를 논설하는 데 맞추도록 할 것이다. 이제 논의는 다시 칸트가 아무런 예비 작업 없이 Su와 Sb를 마주 세우는 곳으로 돌아간다. 왜 칸트는 실체를 현상에서 찾는 가운데 Su와 Sb를 동시에 이야기하는가? 보다 정확하게 말해, 그는 왜 시간관계 규정을 위해 필요한 Su에 더해, 이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Sb까지 이야기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확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추측컨대, 아마도 칸트는 실체가 개념상으로는 항상 “술어의 자리에 올 수 없고 주어로 생각되어야만 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주지하였기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상 중의 실체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커슨은 애당초 칸트의 실체를 일관되게 이해하려 하는 노력을 접어둔 채, <제1유추>에서 등장하는 칸트적 실체는 다섯 가지 의미

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모두 짚어 헤아린다 할 지라도 논증의 올바른 이해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⁸⁾ (Wilkerson (1976), p.74.) 같은 맥락에서 유잉A.C. Ewing도 칸트는 <제1유추>에서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분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실재론자처럼 논설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⁹⁾ (Ewing (1967) p.152.)

주석가들 사이에서 기정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주장처럼, 칸트는 분명히 실체의 개념을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관점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후 <제1유추> 내의 이곳저곳에서 두서없이 전개되는 단편적 논의는 오히려 논증의 일관된 체계를 망가뜨려 독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와 Sb의 당위적 현존을 설파하는 칸트의 사유는 이러한 혼돈의 그림자 가운데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며 우리의 올바른 해석이 취해지길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해석을 갖고서 두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이제 Su와 Sb가 서로 다른데도 왜 ‘단수성’과 ‘절대성’을 통해 한 데 묶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칸트의 아래 주장에 잠시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변화는 오로지 실체들에서만 지각될 수 있다. 발생과 소멸은 순전히 고정불변적인 것과 관계없이 결코 단적으로schlechthin 가능한 지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정불변적인 것이 한 상

8) 윌커슨이 다섯 종류의 실체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현상 중의 대상으로서의 일반 물체, ㉡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실체, ㉢ 모든 사건의 근저에 놓여 있는 고정불변적인 어떤 단순한 것, ㉣ 뉴턴적 우주의 기본물질, ㉤ 위의 것 가운데 ㉠, ㉢, ㉣ 세 가지를 섞어 만들어 놓은 듯한 괴이한 모습의 어떤 것. 나는 윌커슨이 제시한 이러한 다섯 가지 의미의 실체가 결국 ‘Su’와 ‘Sb’의 관계에서 모두 다 드러날 수 있다고 믿기에, 여기에서 윌커슨의 견해를 따르지 않겠다.

9) 이하 논의에서 유잉A.C. Ewing의 위의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김상봉 교수의 국역본(1985, 한겨레)을 참조하되, 본고에서 사용하는 칸트의 철학 용어들의 통일을 위해 내가 원문을 직접 검토하여 인용토록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서지사항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말미를 참조하라.

태에서 다른 한 상태로의 이행의 표상을, 그리고 ‘아님’[혹은, 없음]에서 ‘임’[혹은, 있음]으로의 이행의 표상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것들은 고정불변적인 것의 변전하는 규정들로서만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188/ B 231)

여기에서 칸트는 우리가 앞서 II장에서, Sb를 ‘단수성’과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실체로 규정했던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유를 밝힌다. 당시의 논의는 Su가 단일한 시간의 지속을 설명하기 위한 현상 중의 실체이며, 그 실체는 단수성과 절대성을 갖추어야 칸트의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Sb도 <제1유추>에서 또한 실체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단수성과 절대성을 두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단지 Su에 비추어 Sb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결코 Sb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칸트는 이제 Sb에 대한 그동안의 소극적 규정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에 적극적 규정을 부여함으로써 Sb가 왜 Su와 같이 실체의 단수성과 절대성을 지녀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칸트는,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물의 변화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조건을 살피는 데 주목한다. 이제, 다시 묻자. 변화는 어떻게 지각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다시금 보다 복잡한 상황에 얽혀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유잉이 잘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객관적 시간의 순서”와 “주관적 시간의 순서”를 결코 서로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객관적 시간질서 속에서는 ‘동시에 있음’으로 지각되는 것이 주관적 시간질서 속에서는 얼마든지 ‘계기적 있음’으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wing (1967) p.152.)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변화로 비쳐지는 것’¹⁰⁾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로 경험되는 것’¹¹⁾

10) 주관적 시간질서 속에서는 계기적으로 파악되나, 객관적 시간질서 속에서는 ‘동시적으로’ 파악되는 경우이다.

11) 주관적 시간질서 속에서도 계기적으로 파악되고, 객관적 시간질서 속에서도 ‘계기적으로’ 파악되는 경우이다.

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표상들이 취할 수 있는 시간의 두 양태, 즉 ‘동시성’과 ‘계기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래서 이제 표상들의 두 시간적 양태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일에 칸트의 철학적 노력은 집중된다. 복잡한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사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대학생인 민석이는 오늘 오전 9시 1분(t1)에 자신의 방 한쪽 벽면에 놓여 있는 책상(d)을 보았다. 그리고 9시 2분(t2)에 자신의 방 다른 한쪽 벽면에 놓여 있는 책장(b)을 보았다. 분명 민석이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 책장에서 필요한 책들을 빼서,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공부하였기에, 책상과 책장이 모두 자신의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즉, 책상과 책장이 비록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민석이에게서 지각되었지만, 민석이는 결코 t1의 책상이 변해 결국 t2의 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석이에게는 책상과 책장이 모두 자신의 방 안에 함께 놓여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만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즉, t1과 t2)에서 경험되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민석이가 한 방에 동시에 있는 두 사물(즉, d와 b)을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서 지각하였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¹²⁾¹³⁾

위의 예는 ‘동시에 있는’ 두 사물이 우리에게 ‘잇따라 있는’ 두 사

12) 이러한 사례는 엘리슨의 것을 토대로 내가 재구성한 것이다. (Allison (2004), p.241.)

13)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볼 때, 칸트는 분명 ‘객관적 시간질서’와 ‘주관적 시간질서’를 인과의 관계에 놓고 이후의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보다 근원적 전제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관념론 반박>을 통해 칸트가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물리치는 모습을 가이어 P. Guyer가 두 시간적 질서의 인과적 관계에 기대 서술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Guyer (1987), pp.303-310.)

물로 지각될 수 있는 조금 불합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주관적 시간의 순서는 모든 것을 계기적 질서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계기적 질서로 표현하는 우리의 객관적 시간의 순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적 상황으로 그려질 수 있다: 즉, 두 사물이 실제로 ‘동시에 있는’ 경우와 ‘잇따라 있는’ 경우로 말이다. 그러나 객관적 시간의 순서가 주관적 시간의 순서와 일관되게 결합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은 성립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객관적 시간의 두 가지 순서가 모두 결국에는 주관적 시간의 계기적 질서에 의해 파악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⁴⁾

다시 묻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 즉 실체이다. 다시 말해, 단수성과 절대성을 지닌 기체이다. 앞서서도 이미 논술했듯이, 우리의 주관적 시간질서 속에서 서로 ‘잇따라 있는’ 상태들이 실제로 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객관적 시간질서 속에서 서로 ‘잇따라 있는’ 상태들이 실제로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칸트는 이러한 증명이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중의 가장 바닥에서 기능하는 고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만, 그것에 기대 모든 발생과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고정적인 것이 있어야만 변화의 개념을 모순 없이 기술할 수 있고, 그러한 고정불변적인 것이 영구성을 지닌 절대적 의미의 실체라면 변화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두 상관항,

14) 워드A. Ward는 앞서 인용한 A 188/ B 231 이하의 논의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견해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드라이어P.D. Dryer, 엘리슨, 가이어, 밴 클레브J. van Cleve 등을 위시해 등장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Shared Interpretation”으로 묶어 나름의 세 가지 이유에서 비판한다. 나는 본고에서 워드의 비판을 거부한 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Ward (2001), pp.392-393.)

즉 ‘변화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의 대립된 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Su와 마찬가지로 Sb도 절대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Su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요소인 단수성을 Sb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치상으로는 Sb도 Su와 같이 단수성을 띠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마땅한 전거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칸트가 ‘실체’와 ‘실체들’이라는 용어를 그것의 단수·복수에 대한 구분 없이 섞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논의가 칸트의 의중을 드러내기 위해 더 이상 나아갈 곳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 아주 상세하게 칸트의 논의를 뜯어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여전히 칸트가 <제1유추>에서 말하고자 한 실체의 형식적 열개를 두르는 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빙빙 맴돌고 있다. 다만, 우리는 Su와 Sb가 모두 절대성을 지닌 실체여야 함은 분명한데, Su와 같이 Sb도 단수성을 지닌 실체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에 이제 막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는, <제1유추>에서 Su와 Sb를 모두 포함하는 고정불변적인 실체로서 의미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Sb의 단수성 여부에 대한 물음도 적절한 해답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이제 실체의 세 개념을 구별함으로써 <제1유추>에서 논의되는 실체가 위치해야 할 자리를 올바르게 잡아준 랭턴의 논의에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그녀에 따르면, 칸트의 실체는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떠나, 아래와 같이 구별되어야만 한다.

S1: 순수한 논리적 의미의 실체 개념

S2: 도식화된 실체 개념

S3: 현상적 실체 일반의 개념 (Langton (2004), p.56.)

랑턴은 무엇보다 S1과 S3을 대립의 관계에 놓고 파악하는 작업에

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칸트의 여러 텍스트들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S1은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1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사유에서 아무 모순 없이 가능하면 족하다는 사실을 함축할 뿐, 그것이 꼭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내용에 토대해볼 때, 칸트의 주장에 따라, S1은, “그것이 더 이상 어떤 한 술어로서 다른 어떤 주어를 전제하지 않는 절대적이면서 가장 최후의 주체”(R 529S, AA 18:145)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S3은, 그것이 언제나 현상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상적 실체로 불린다. 그러나 앞서서도 이미 계속 강조하였듯이, 현상적 실체라 불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 다분히 추상적으로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을 뿐이고, 더욱이 랭턴이 말하는 S3은, 그것이 기술되는 과정에서 결코 시간의 개념을 끌어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S3을 ‘현상적 실체’라기 보다 ‘현상적 실체 일반’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제 좀 더 분명해진 S1과 S3의 의미에 기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논리적 가능성으로서 실체”(S1)와 “실재적 가능성으로서 실체”(S3)의 대립적 관계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Langton (2004), pp.53-56.)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제1유추>에서 논의되는 실체인 S2가 서로 대립된 관계에 놓인 S1과 S3의 사이에서 어떻게 정위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겠다. 랭턴은 이에 대해 아무 망설임도 없이 S2는 S3의 한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 그녀는, S2가 실제로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이라 논설한다. (Langton (2004), p.56.) 아마도 랭턴은 진짜,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의 실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S1일뿐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S2와 S3은 비록 그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의해서 실체로 불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의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 랭턴의 이해에 따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S2는 그것이 상대적 실

체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S1보다는 S3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S2는 그것이 규정되기 위해 시간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시금 S3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S2는, 어떤 측면에서는 S1과 같으면서도 다르며,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S3과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턴에게 있어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S2와 S1의 사이에 놓인 간극을 S2와 S3의 사이에 놓인 간극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랭턴은 <제1유추>에서 드러나는 실체의 의미를 S1보다는 S3에 보다 무게를 실어 규정함으로써 우리에게 S2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후보로 그녀는 ‘물질’을 언급하며, 일단의 논의를 끝맺는다.

이제, 다시 묻자. 왜 물질인가? 그리고 칸트에게서의 물질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칸트의 아래 주장을 살펴보자.

[...] 대상들이 우리의 감각에, 그러니까 후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한에서, 이것들에 대해 나는 어떻게 선험적 인식을,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그것은 물질(불가투입적인 생명 없는 연장)이란 순전한 개념에 의해 [...] 일어난다. (A 848/ B 876)

여기에서 ‘불가투입적인 생명 없는 연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물질’에 대해 칸트는 다시 보다 구체적 설명을 곁들여 아래와도 같이 부연한다.

공간상에서의 어떤 고정불변적인 현상(불가투입적인 연장)은 관계들만을 함유할 뿐, 전혀 아무런 내적인 것도 함유할 수 없으며, 모든 외적 지각들의 제일의 기체일 수 있다. (A 284/ B 340)

위의 두 인용문을 통해 이야기되듯이, ‘물질’은 ‘고정불변적인 현상’과, 그리고 ‘불가투입적인 연장’과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투입적인 연장을 지닌 고정불변적인 현상으로서의 물

질은, 자신을 여타 현상 중의 사물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한다. 비록 계절 주기의 변화, 태양의 움직임, 밤과 낮의 바뀜 등과 같은 현상들도 일정정도 고정불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존재에 기대 어떤 규칙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도 결국 Su적 의미에서 보다 고정적인 어떤 것에 의해 이야기될 수 있고, Sb적 의미에서 보다 밑바닥에 있는 변화의 기체에 의해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성을 갖춘 실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한, 탐구의 극한으로까지 나아가 현상 중의 절대적 실체를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탐구의 결실로, 논의의 궁극에서 칸트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물질인 것이다. 물질은 그것이 ‘고정불변적인 현상’ 또는 ‘불가투입적인 연장’으로 정의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상’이기도 하고 ‘사물 자체’이기도 하며, ‘현상’이 아니기도 하고 ‘사물 자체’가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자의 중간에서 현상과 사물자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갖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¹⁵⁾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 존재의 위상을 지닌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현상체와 예지체의 경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물질은 현상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애타게 찾아왔던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로서 이해되며, 예지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로서 이해된다. 즉, 어떻게 이해되든 간에 상관없이, 물질은 이제 우리에게 절대적 실체성을 띠고 나타나며, 이 때문에 Su와 Sb가 찾던 실체의 한 조건은 자연스레 충족된다. 우리는 이제 Su와 Sb가 찾던 실체의 나머지 다른 한 조건을 마저 찾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물질에서 단수성을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자.

15) 물질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고정불변적인 현상’과 ‘불가투입적인 연장’의 의미에서, <현상>과 <연장>은 현상의 성질로 규정될 수 있고, 반대로 <고정불변성>과 <불가투입성>은 사물자체의 성질로 규정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물질이 현상일 수도 없고, 사물자체일 수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상’과 ‘사물 자체’의 간극에 놓인 경계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질은 또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실체의 현상일 뿐이다. 현상 중에 고정적인 것은 물체들에서의 잡다의 기저에 놓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 부른다. (AA 28:209)

위의 논의를 통해, 이제 물질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위의 논의는, 그것이 결국 칸트에 의해서든 아니면 칸트의 형이상학 강의를 기록한 학생에 의해서든 간에 상관없이, 내용이 조금은 우리의 혼동을 유발토록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인용문을 아래와 같이 보다 분명하게 고쳐 새겨야만 한다.

물질은 또한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의 현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단지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상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이자, 현상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일 뿐이다.] 현상 중에 고정적인 것은 물체들에서의 잡다의 기저에 놓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 [즉, 우리는 이와 같이 현상 중의 고정적인 것을,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상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 다시 말해 현상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 그러니까 물질이라] 부른다.¹⁶⁾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물질은 분명히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는 아니지만, 그것은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의 여러 힘들(특히, 인력과 척력에 의한 힘들)과 관계적 속성을 반영하는, 현상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이다. 즉, 물질은 예지체의 측면에서 본 절대적 의미의 절대성을 지닌 실체의 여러 힘들과 관계적 속

16) 표면상으로는 위의 인용문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에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는 해도, 우리가 결국 <예지체적으로 절대적 의미를 띠는 절대자인 사물자체>에 비추어 <물질>을 이해하고, 다시금 이러한 <물질>에 비추어 <현상체적으로 상대적 의미를 띠는 절대자인 현상>을 이해하는 칸트적 사유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텍스트 해석은 보다 타당하게 간주되어야만 한다. (R 4422, AA 17:540)

성을 통해 의미되는 무엇이며, 이를 재차 부연하면, 물질이 지닌 이와 같은 여러 힘들과 관계적 속성의 일시적이면서 특수한 배열을 통해 우리에게 현상 중의 수많은 물체들이 현시된다. (Langton (2004), p.59.) 그러니까, 물질이 지닌 여러 힘들과 관계적 속성이 이렇고 이렇게 배열되어 규정되면 ‘책상’이란 물체가 우리에게 비로소 현시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한 저렇고 저렇게 배열되어 규정되면 ‘책장’이란 물체가 우리에게 비로소 현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Su와 Sb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실체의 나머지 다른 한 조건, 즉 단수성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비록 여러 힘들과 관계적 속성의 반영으로 표출되는 물질은 언제나 단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러한 힘들과 관계적 속성의 수없이 다양한 배열에 의해 여러 사물들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실체의 단수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물질의 다양한 배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실체의 복수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서 보면, 우리는 이제 <제1유추>에서 왜 그리도 칸트가 고정불변성을 담지하는 무엇에 대해 말하기 위해 어떤 때는 “실체”라고, 또 다른 어떤 때는 “실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스스로가 논의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연컨대, 우리는 칸트가 이와 같이 비일관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실체’와 ‘실체들’이라는 말을 통해 고정불변적인

17)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물질>에 대해서만 실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며, <물질의 다양한 배열>은 결국 여러 물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체라고 불러서는 안 되지만, 칸트는 종종 이러한 구별을 무시한 채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양자 모두를 실체라고 함으로써, <실체>와 <실체들>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다시 말해 쓸데없는 용어상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물질을 통해 현상체와 예지체의 두 의미를 모두 잡으려, 또 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실체의 개념에 대한 표면상의 이러한 혼동은 오히려 칸트의 철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득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칸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체의 논의를 위해 필연적이기에 더욱 지지되어야만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것에 보다 엄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1유추>에서 언급됐던 두 가지 의미의 실체, 즉 Su와 Sb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의 요건, 즉 절대성과 단수성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게 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칸트가 <제1유추>에서 의미가 서로 다른 이러한 두 실체를 함께 묶어 언급한 이유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다. 요컨대, 절대성과 단수성을 두루 갖춘 Su와 Sb가 <제1유추>에서 한 데 모여 탐구되어야만 할 당위가 서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어수룩한 논의의 전개와 구성의 방식을 문제 삼아 실체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일련의 해석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대신에, 칸트의 불완전한 논증을 이제 그가 펼치고자 했던 철학적 사유에 기대 다시 조직하고 차츰 보완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III장 서두에서 언급하였으나 아직 대답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 마지막 물음에 마저 대답해보도록 하자.

다시 묻자. ㉠은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앞서 실체량 보존에 대해 논설하는 ㉠의 물음은 Su와 Sb를 마주 세워 양자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답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Su와 Sb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이상, 해묵은 지난 약속은 응당 지켜지게 된다. 이제, 우리는 Su와 Sb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실체가 다름 아닌 물질로 규정된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이에 더해, 실체는 그것이 어떤 술어들에 의해 실체라고 말해짐과 동시에 실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경험적 설명을 부여할 수 없어 결국 초월적 설명을 통해 그것에 대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 즉, 물질에 대한 초월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얻게 됐던 것은 결국 “불가투입적인 연장”이었으며, 이것은 곧 초월적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질의 유일한 성격은 다름 아닌 “공간점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물질의 특성으로 밝혀진 공간점유, 즉 공간성은

그것이 전적으로 무규정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순수한 물질이 떠는 것과 같은 무규정적임을 지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이해¹⁸⁾되는 무규정성이 아닌, ‘초월적 의미’에서 이해¹⁹⁾되는 무규정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경험적 술어나 초험적 술어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없으며, 초월적 술어를 통해, 그것도 기껏해야 공간성을 일정한 연장적 크기의 덧붙임에 의해 하나하나 헤아리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양의 범주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㉔의 주장과 같이, 결국 물질의 고정불변성은 그것의 양(물질량 혹은 실체량) 보존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지금까지 서로 혼동되어 왔던 ‘물체량 보존의 법칙’과 ‘실체량 보존의 법칙’이 이제 분명하게 구별됨으로써, ㉔의 주장에 정당성이 실리게 된다. (Allison (2004), p.245.) 즉, 후자를 전자와 동일하게 파악함으로써 칸트가 초월적 논의를 경험적 논의로 환원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한 베넷의 주장은, 결국 그것의 잘못이 드러나 거두어져야만 하게 됐다.

IV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통해 <제1유추>에서 제기했던 대부분의 물음들에 대한 대답들이 주어지게 됐다. 특히, 우리는 <제1유추> 첫 단락의 내용을 해부함으로써 실체의 두 의미를 발견하게 됐고, 이후 그러한 두 실체가 공통으로 내포하는 ‘단수성’과 ‘절대성’을 매개로 하여 ‘Su’와 ‘Sb’의 구체적 의미가 물질로 규정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며, 그러한 물질이 결국 칸트가 염두에 두었던 실체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랭턴이 분석한 세 실체의 개념에 의한 긴장의 끈 속에서 탐구해보았다. 즉, 우리는 <제1유추>에서 문제되는 도식화된 실체

18) 무한자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무규정적임을 의미한다.

19) 유한자의 관점에서, 즉 인간의 유한한 인식적 한계를 토대로 무규정적임에 다가가려 하는 노력을 말한다.

(S2) 개념이 어떻게 S1과 S3의 극단적 대립관계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며, S2가 나머지 두 실체 개념들과 같으면서 또 다를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것이 ‘경험적 조건’도 아니고, ‘초월적 조건’도 아니며, 결국 “초월적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일단의 논의를 끝맺었다. 이제, 이와 같은 대강의 그림에 기초해 조금은 성급하게 매듭지어졌던 논의의 중심에 다시 들어서보도록 하자. 칸트는 아래처럼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체 개념의 바탕에 둘 수 있는, 직관으로서의,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한낱 **물질**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불변성조차도 [...] 선형적으로 모든 시간규정의 필연적 조건으로, 그러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현존과 관련해 외적 사물들의 실존에 의한 내감의 규정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B 278)

비록 위의 인용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했던 실체의 두 의미가운데, Su와 관련해서 특히 많은 시사를 던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정불변성”이 ‘단수성’과 ‘절대성’의 두 의미를 띠고 탐구됐던 이전의 논의를 되짚어보았을 때, 위의 인용문은 결국 Sb에 대해서도 또한 의미 있게 말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다시 칸트의 사유가 실체성에 다름 아닌 고정불변성을 결국에는 우리의 인식을 위한 “선형적이면서 필연적인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칸트는 실체 고정불변성에 대한 이해가, 인식을 위한 우리의 “초월적 조건”에 기대 가능하게 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B 25) 그렇기 때문에, <제1유추>에서 실체로 규정된 물질의 현존에 대한 근원적 의미를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유한한 인간의 인식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곧, 인간의 초월적 인식의 조건에 기대 물질의 현존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는 과정이 어떻게 독단론과 회의론의 두 철학적 딜레마를 떨쳐내면서도 우리에게 결국 의미 있을 수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다시 묻자. 그렇다면, 현상성과 사물자체성의 두 성질을 동시에 띠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고정불변적인 것, 즉 물질은, 그것의 현존이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면서 왜 항상 ‘현상 중에 있는’ 것으로서 서술되어야만 하며, 그것의 현존이 이와 같이 서술되는 한, 결코 개념상으로도 우리에게 그것의 고정불변성이 입증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현상 중의 고정불변적인” 것으로서 이해되는 물질이, 그렇게 이해되는 한에 있어서만 결국 우리의 경험적 통일을 위해 모순 없이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참된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항상 요청되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인 것이다. (Allison (2004), p.244.) 칸트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아래처럼 부연한다. 잠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논의는 단지 경험 영역의 현상들에 관한 것일 따름이며, 경험의 통일성은 만약 우리가 새로운 사물들을 (실체의 면에서) 생겨나게 하고자 한다면 결코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유일하게 시간의 통일성을 표상할 수 있는 것, 곧 거기에 서만이 모든 바뀔이 일관된 통일성을 얻는 기체의 동일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불변성은 우리가 (현상에서) 사물들의 현존을 표상하는 방식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A 186/ B 229)

칸트에 따르면, 현상 중의 고정불변적인 것에 대해 정당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것의 현존을 전제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철학적 독단론과 회의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방식이자 길이라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그러한 사유가 왜 올바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 차원의 정당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칸트가 내놓는 해답은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부터 반성하여 생각하는 ‘또 다른 나’가 항상 전제되어야만 한다”(백승환 (2009), p.106.)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의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모습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고정불변성이 곧 ‘존재론적 차원’에서 입증될 수는 없으며, 결국 우리의 인식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즉 ‘인식론적 차원’에서 입증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금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사유의 구조가 “나는 무언가를 생각[인식]하는 나를 생각[의식]한다”²⁰⁾(백종현 (1990), p.27.)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을 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두 종류의 나, 즉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가 고정불변성을 지닌 물질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 중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의 논의는 두 자아가 우리의 경험의 통일과 인식의 성립을 위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두 자아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중에 무엇보다 먼저 전자를 정초하는 후자의 현존과 특성에 대해 논설하는 칸트의 아래 주장에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 단순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는 전혀 공허한 표상인 ‘나’가 있을 뿐이다. 이 표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개념들에 수반하는 한낱 의식일 따름이다. [...] 이것은 이 표상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불편함이다. 의식 자체는 한 특수한 객관을 판별하는 표상이 아니라, 표상을 인식이라고 불러야 하는 한에서의 표상 일반의 형식이니 말이다. (A 346/ B 404)

‘나는 사고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표상들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것—그것은 표상으로서의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하겠는데—이 나에게서 표상되는 셈이 될 것이니 말이다. (B 132)

통각의 초월적 통일은 직관에 주어진 모든 잡다를 객관이란 개념에서 합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통일은 객관적 통일이라 일컬어져, 의식의 주관적 통일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B 139)

20) 이러한 두 ‘나’의 이중적 사유 구조는 <ego-cogito-me-cogitare-cogitatum>으로 표현될 수 있다.

[...] 표상들은 그것들로부터 인식이 생길 수 있는 한, 모든 표상들의 객관적 규정의 원리들에 따라 서로 소속하는 것이며, 이 때 이 원리들은 모두 통각의 초월적 통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B 142)

칸트는 우선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인용문을 통해 ‘의식하는 나’인 초월적 자아가 결국 ‘인식하는 나’인 경험적 자아를 위한 수반 의식으로 기능하게 됨을, 아니 반드시 그렇게 기능해야 함을 밝히면서,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용문을 통해 이와 같은 초월적 자아의 활동은 한낱 의식의 ‘주관적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게 됨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수반의식이자 궁극적 자의식으로서 기능하는 초월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와 ‘경험적 대상’을 서로 일관되게 묶어 참된 인식의 성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선형적이면서 필연적인 방식으로 경험의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 132)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의식의 초월성에 기대 이와 같이 현상적 실체의 고정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정당화하는 칸트의 논증은 적극적일 수가 없다. 즉, 그러한 방식은 우리의 의식적·인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차원도, 또한 초험적 차원도 아닌, 초월적 차원으로부터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여 우리의 경험의 통일과 인식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밝힌다는 점에서, 두 철학적 함정인 독단론과 회의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 활동을 위해 초월적 자아의 현존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가장 근본에서부터 지지하는 형식으로 기능하게 되며, 그것은 이제 경험적 자아가 자신의 통일을 위해 경험적 대상을 넘어 그것의 근원에 놓인 물질의 고정불변성을 자각하려 하는 순간, 인식의 형식적 구조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에서 바로 의식의 초월성에 의해 현시되는 물질의 고정불변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백승환 (2009), p.107.)

이러한 이유 때문에, 랭턴이 S2를 S1과 S3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S2를 결국 S3의 한 사례로서 환원시키면서 기껏해야 S1을 모방하는 차원으로 설명했던 것은 이제 잘못으로 판명되어야만 한다. (Langton (2004), pp.56-63.) 이러한 설명은 칸트의 초월적 사유를 전혀 통찰하지 못한 채 존재론적으로 S2를 규명하려 했던 잘못된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초월적 사유의 두 극단에 위치한 ‘초월적 자아’의 현존과 ‘물질의 고정불변성’에 대한 칸트의 인식론적 접근에 토대한 노력은 모두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Su와 Sb의 구체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또한 S1과 S3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S2가 <제1유추>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찾기 위해서도 칸트의 사유는 필히 그것이 애당초 발원하는 초월적 의식으로부터 탐구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작업이 내가 이제까지 구성한 논증을 통해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면, 여러 논증들이 뒤섞여서 마치 마구 형클어진 실타래와 같이 우리에게 보아졌던 <제1유추> 실체 고정불변성에 대한 논의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보다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다.²¹⁾

투 고 일: 2009. 10. 28.
 심사완료일: 2009. 11. 30.
 게재확정일: 2010. 02. 16.

백승환
 서울대학교

21) 내가 본고의 IV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실체의 고정불변성을 ‘우리의 인식을 위한 선험적이면서 필연적인 조건’으로 해석하며 두 가지 의미의 자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데 대해 세 임명의 심사위원께서 훌륭한 논평을 해주셨다. 좀 더 자세한 논증을 꾸며 세 분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공부의 깊이가 알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일단 고백해야겠고, 논문 간행을 위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압축된 논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족한 논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 흔쾌히 동의하신 데는 분명 오늘의 미진한 연구를 좀 더 보완하여 한국 철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증을 하나 하나 세세하게 뜯어 살펴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참고문헌

- Kant, I.,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later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vols. 1-24, 27-29 (Berlin: Georg Reimer [later Walter de Gruyter], 1900-.)
-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J. Timmerman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98.)
- _____, *Critique of Pure Reason*, ed. trans. by P. Guyer & A.W. 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1, 2 (서울: 아카넷, 2006.)
- 백승환, 「칸트의 관념론 반박과 의식의 초월성」, 철학사상 제32집, 2009, pp.81-114.
- 백종현, 「의식의 초월성: 칸트 초월철학에서 ‘초월적 의식’의 개념 형성과 후설의 이해」, 『후설과 현대철학』 (서울: 서광사, 1990, pp.1-50.)
- _____, 『존재와 진리,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3.)
- Allison, H.E.,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4.)
- Bennett, J., *Kant's Analyt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Dicker, G., *Kant's Theory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Ewing, A.C.,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Guyer, P., *Kant and the Claims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Langton, R., *Kantian Humi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98] 2004.)

Ward, A., “Kant’s First Analogy of Experience”, *Kant-Studien* 92, 4 (2001), pp.387-406.

Wilkerson, T.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 Commentary for Students* (Oxford: Clarendon Press, 1976.)

ABSTRACT

Kant's Substance and the First Analogy

Baek, Seung-Hwan

In the First Analogy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Kant determines a substance as something persistent and tries to make a sophisticated argument to support this assertion. Kant's ambitious project, however, collapses because of its unclarity and complexity. Facing this untoward situation, firstly, I will outline the concept of substance used in the First Analogy and point out that Kant holds a confused view of substance. (II) Secondly, I will show that this confusion results from his topsy-turvy use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substances - "a substance as an underpinning of time" and "a substance as a bearer of attribut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will emphasize that the meaning of "substance" implied in the First Analogy should turn out to be "matter" which is founded upon 'simplicity' and 'absoluteness'. (III) Nonetheless, the existence of matter, in actuality, cannot be justified in an ontological sense. Rather, it should be observed that this existence is meaningfully demonstrated in an epistemological sense only with regard to the transcendental I as an ultimate self-consciousness that accompanies all kinds of thoughts. (IV)

Keywords: Kant, matter, substratum, substance as an underpinning of time, substance as a bearer of attributes